‘아쿠아슈즈’ 하나면 물놀이·등산 OK!

OUTDOOR & TREND | 레저활동 최적화 ‘멀티슈즈’가 뜬다

머렐 ‘아쿠아테라’ 수중 활동에 적합
뒤틀림 방지 적용해 등산도 문제없어

휠라 ‘아쿠아마린’ 일상 활동에도 딱
아이더 ‘엑스터’ 워킹+등산화 인기

머렐 ‘아쿠아테라’ 남성용 4종 ▶

머렐 ‘아쿠아테라’ 여성용 3종 ▲

휠라 ‘아쿠아마린’ ▶

아이더 ‘엑스터’ ▶

▶ 도심에서 신고 다니는 등산화, 물놀이와 러닝, 캠핑과 워킹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발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멀티 슈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머렐에서 출시한 아쿠아슈즈 ‘아쿠아테라’. 사진제공 | 머렐

신발도 멀티 플레이어가 대세!

스포츠·아웃도어 활동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신발도 한가지에만 특화된 신발보다는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멀티슈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심에서 신고 다니는 등산화, 물놀이와 러닝, 캠핑과 워킹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슈즈들이다.

화승 마케팅팀 전승봉 팀장은 “최근 레저활동 인구가 크게 늘면서 캠핑, 트레일러닝 등 레저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상에서도 신을 수 있는 경제적인 멀티슈즈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미 스포츠·아웃도어 업계에서는 이런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멀티슈즈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륙양용’ 아쿠아슈즈 인기

머렐의 ‘아쿠아테라’(12만9000원)는 ‘아쿠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물놀이에 적합한 슈즈이다. 하지만 물놀이뿐만 아니라 가벼운 등산까지 가능한 멀티슈즈다.

가벼운 신발들이 지적받아 온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화 우레탄(TPU) 소재를 갑피에 활용했다. 물이 쉽게 빠져 나가고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설계돼 물과 관련된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됐다.

발바닥이 지면과 최대한 가깝도록 디자인돼 지면과의 접지력을 높이고 뒤틀림 방지기능을 적용해 트레킹, 등산을 할 때 신어도 손색이 없다.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휠라의 ‘아쿠아 트레일’(7만5000원)은 아쿠아슈즈에 트레일화 기능을 접목시킨 신개념 슈즈. 발등의 신발 끈을 조여 주는 스토퍼 디테일을 적용해 계곡, 등산로 등 굴곡이 심한 지면에서도 발등을 단단하게 감싸주어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다.

함께 출시된 ‘아쿠아 마린’(6만9000원)은 끈이 없어 신고 벗기 편리한 슬립온 스타일이라 야외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캐주얼웨어와 매치시키기가 쉽다.

●등산도 OK, 캠핑도 OK “워킹화 맞아?”

워킹화지만 산행, 캠핑 때 신을 수 있는 슈즈도 있다. 아이더 ‘엑스터’(14만9000원)는 통기성이 뛰어난 메시 소재의 비중을 높여 장시간 걸어도 쾌적한 느낌을 준다. 스포티한 외형에 끈 매듭을 넣을 수 있는 덮개를 적용해 일상에서도 편리하게 신을 수 있다.

르까프의 스포츠형 아웃도어 콘셉트 트레일 러닝화 ‘XR 그라운드’(11만9000원)는 산길이나 숲 속을 달리는데 최적화된 트레일 러닝화지만 쿠셔닝이 탁월해 도심에서 러닝을 할 때 신어도 부족함이 없다. 무봉제 공법을 사용해 움직임이 많은 트레일러닝을 할 때도 신발의 주름, 손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내구성이 자랑이다.

케이스위스도 아쿠아슈즈에 러닝을 접목한 ‘아쿠아런’(10만9000원)을 내놨다. 가볍고 물이 잘 빠지는 아쿠아슈즈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러닝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창을 보강했다. 단단하고 푹신한 파일론 중창을 이중으로 삽입해 쿠셔닝이 뛰어나다. 신발 전체에 통풍성이 뛰어난 메시 소재를 적용해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신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

양형모 기자 ranbi361@donga.com
트위터 @ranbi361

스마트폰 ‘삼국지 게임’ 열풍

넷마블 ‘다함께 삼국지’ 등 다양한 장르 출시 봇물

게임의 단골 소재 ‘삼국지’를 모티프로 한 스마트폰 게임들이 잇달아 출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르도 전략 시뮬레이션부터 액션, 디펜스, 카드육성 등 다양하다.

CJ E&M넷마블은 최근 ‘다함께’ 시리즈 5탄인 액션게임 ‘다함께 삼국지 for Kakao(사진)’를 출시했다. 이 게임은 천하를 제패하기 위한 영웅들의 전투를 담은 횡스크롤 액션게임.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각 영웅들이 귀여운 캐릭터로 구현돼 남녀노소 누구나 친숙하게 플레이 할 수 있다. 스마트폰 게임에선 느끼기 힘든 호쾌한 타격감과 뛰어난 조작감이 강점이다. 다른 이용자들과의 대전은 물론 카카오톡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1:1 대전을 할 수 있다.

엔터메이트의 스마트폰 게임 ‘아이러브삼국지 for Kakao’도 삼국지를 소재로 한 게임이다.이 게임은 인기 웹게임 ‘와룡전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정통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다. 실제 역사적 고증을 통한 삼국지 스토리를 기반으로 역사 속 장수와 다양한 병종, 진법 싸움을 담았다. 카카오 계정 연동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게임 실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라이브플렉스는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디펜스 게임 ‘3K 캐슬디펜더즈’를 서비스 하고 있으며, 게임빌도 삼국지 배경의 카드육성 전략 게임 ‘영웅삼국지’를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삼성-애플 ‘특허전쟁’ 형세 역전

ITC, 애플의 침해 제소건 삼성전자 측 손 들어
결정 따라 애플 일부제품 美 수입금지 될 수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카피캣’이란 오명을 씻을 기회를 얻었고, 애플은 ‘혁신’이라는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 제소건에 대해 ‘침해 결정’을 내렸다. ITC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특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3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은 중국 등에서 생산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본고장인 미국에 수입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ITC의 결정이 실제 수입금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의 판단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 또 해당 제품에 ‘아이폰5’와 ‘아이폰4S’,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등 최신 제품은 빠져 있다. 여기에 ‘판매금지’가 아니라 ‘수입 금지’인 만큼 이미 수입해 놓은 제품은 팔 수 있어 당장 애플의 매출에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TC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의 이미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카피캣’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최종판결은 8월1일로 예정돼 있다. 김명근 기자

숲길 따라 영화의 울림을 듣다

13~17일 덕유산 리조트서 ‘무주산골영화제’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사진)가 열린다.

‘설렘’ 가득한 영화 소풍길을 따라 깊은 ‘울림’을 발견하는 ‘어울림’의 영화제라는 콘셉트부터가 눈길을 끈다. 극장이 없어 영화를 접하기 힘든 산골 무주에서 리조트를 찾은 고객과 무주군 지역민에게 영화를 통해 ‘자연을 찾아 소풍을 떠나는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최초로 스키 슬로프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야외무대에서 개막작인 ‘청춘의 십자로’를 비롯해 ‘서칭 포 슈가맨’, ‘송포유’ 등 국내외 명작들을 상영하게 된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마리서사, 레인보우 스테이지, 허클베리 핀, 네미시스, 윈디시티 등 록밴드와 포크 레게 어쿠스틱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여한 공연이 열린다. MC프라임과 YMEA를 초청해 관객과 함께 즐기는 DJing 파티, 전북도립국악원과 비보이가 함께 진행하는 예술축제, 송대관 현철 조항조 김혜연 소명 박윤경 등 가수들이 출연하는 MBC 가요 베스트 등 다양한 공연이 관객을 기다린다.

특히 개막작인 ‘청춘의 십자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무성영화로 변사(배우 조희봉)의 해설과 노래, 라이브 연주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앙상블관에서는 MBC가 제작한 ‘지구의 눈물’ 연작 시리즈 다큐멘터리 극장판 4편이 상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덕유산리조트(www.mdysresort.com)나 무주산골영화제(www.mjff.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형모 기자

청정 자연과 아픔이 공존하는 그 곳

TOUR & INFO

호국보훈의 달 6월에 가볼 만한 안보여행지

강원도 양구 을지전망대 오르면 금강산도 한 눈에
경기도 연천 무장공비침투로 전시…경각심 높여줘
인천 백령도 북서쪽 끝에 위치한 평화와 전쟁의 섬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연일 좋은 날씨에 주말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호국·안보’를 콘셉트로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관광공사는 ‘2013 내나라 호국·안보여행’ 이라는 테마로 6월에 가볼 만한 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쟁의 상처 위에 피어난 청정자연 - 강원도 양구

을지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펀치볼 마을

강원도 양구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9개 전투가 벌어진 곳.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마저 온전히 살아남지 못했으니 얼마나 많은 젊은 목숨이 산화 했을까. 을지전망대에서는 북녘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금강산 봉우리도 육안으로 보인다.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 양구전쟁기념관은 양구 펀치볼의 3대 안보 관광지다.

청정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 두타연도 가볼 만하다. 2004년 개방되기 전까지 민간인 통제구역이어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박수근미술관과 이해인 시문학관, 국토정중앙천문대와 캠핑장, 양구산양증식복원센터, 광치계곡 등 1박2일 일정으로 돌아보기 좋은 명소가 수두룩하다.

●분단의 아픔을 마주하다 - 경기도 연천

1·21무장공비 침투로

경기도 연천의 승전OP(Observation Post)와 1·21무장공비침투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말해준다. 국군과 북한군 관측소의 거리는 불과 750m다. 하지만 철책만 빼고 보면 평화로운 산과 들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다.

1·21무장공비침투로에는 휴전선을 넘어온 무장 공비 31명이 경계 철책을 뚫고 침투하는 모형물이 전시돼 안보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준다. 인근에는 경주를 벗어난 유일한 신라 왕릉인 경순왕릉과 고구려의 호로고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시대 유적인 연천 전곡리유적 등 역사 체험에 유용한 여행지도 많아 유익하다.

●평화와 전쟁의 섬 - 인천 백령도

등대해변

인천에 속한 백령도는 우리 땅의 서쪽 끝이자 북쪽 끝이다. 중국 산둥반도와는 190km, 북한 황해도 장연군과는 10km 거리다. 인천을 오가는 뱃길이 200km 남짓이니 서울보다 북한이나 중국과 가까운 셈이다. 조선 후기에 서구 열강은 백령도를 징검다리 삼아 우리 땅에 기독교와 천주교를 전하려 했고, 한국전쟁 때는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평화와 전쟁의 아픔이 공존하는 백령도는 이즈음 찾기에 더없이 좋은 여행지 중 하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네파 ‘오토캠핑 특별 기획전’ 최대 40% 할인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대표 김형섭)가 창립을 기념해 8월 4일까지 오토캠핑 제품을 최대 40% 할인판매하고 구매 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하는 ‘오토캠핑 특별 기획전’을 실시한다. 2013년 신상품 역시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100만원 이상 구매 시 13만원 상당의 네파 ‘와이드 쿨러 텐트’, 70만원 이상 구매 시 캠핑용 체어 3개, 50만원 이상 구매 시 캠핑용 체어 2개, 30만원 이상 구매 시 캠핑용 앞치마를 증정한다. 네파 전국 매장(일부 백화점 매장 제외)을 통해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ep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광동제약 ‘광동 레몬녹차’ 출시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수부)이 제주산 유기농 녹차를 원료로 한 ‘광동 레몬녹차’를 출시했다. 광동 레몬녹차는 제주 유기농 녹차 추출액과 레몬 농축액의 조화를 통해 녹차의 깊은 맛과 레몬의 상큼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료다. 광동제약은 앞서 제주산 한라봉을 이용한 ‘한라봉과 유자’를 출시했다. 올 초 2만여 평의 재배지에 토종 옥수수를 파종했으며 최근에는 제주산 검은콩 계약재배를 하는 등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